

미혼모의 임신 기간 중 심리사회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고은애 한동대 박사과정
김혜정 한동대 교수

시편 기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71:6)”라는 고백을 하였다. 그의 고백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태에서 시작되며 생명의 시작인 모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아동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최근 덴마크에서 132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결과로 임신 초기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신체적, 정신적 행복이 낮다고 보고한 임신부의 경우 아기가 태어난 후에 빈약한 애착을 맺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 되었다(Ertmann et al., 2021). 한 아이가 유아기에 주 양육자와 맺는 애착의 유형이 불안정한 경우 이후에 겪게 되는 다양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취약성을 생각할 때(Main, 2000) 임신기 모의 심리사회적 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Sandman과 그의 동료들(2011)은 임신 초기에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태아발달의 지연을 초래하고, 유아동기의 정서조절이나 인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Harron과 그의 동료들은(2021)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영국의 행정병원에서 시행된 출생 코호트를 조사한 결과, 모가 빈곤, 10대 출산, 정신 건강문제로 입원, 알코올 남용 및 폭력, 자해 등의 문제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위험요소가 없는 모를 가진 자녀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처럼 모가 임신 중에 겪는 부정적인 심리 사회적 경험은 태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영향은 출생 후에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중에 있는 모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생명존중의 초석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임신부는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과 주변의 축하와 지지를 받으며 임신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임신기라는 주요한 시기를 혼동과 죄책감과 책임감 같은 무거운 정서적인 짐과 아울러 경제적인 짐을 지고 지나게 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미혼모라는 집단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문화를 따라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금기문화가 있고, 특히 여성에게 더 보수적인 성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서처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났으며 최근 낙태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미혼모에 대한 관심도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1994)의 정의에 따르면, “미혼모란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하였거나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미혼, 별거, 사별 등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상태로서 한국사회 통념상 혼전 임신일 경우에만 미혼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광의적 사전적 의미에서는 적법한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출생한 모든 여성이 미혼모의 범주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교문화가 깊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낙태와 해산의 선택, 해산 후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선택, 경제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있더라도 사회경제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있더라도 미혼모가 겪는 대인관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 주였다. 구체적으로, 기혼 모들에게 지지자원이 되는 원가족은 미혼모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고, 아이의 생부는 출산과 양육을 지지하지 않아 미혼모는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이현주, 2011). 박동진과 그의 동료들이(2017) 베이비박스 이용 경험이 있는 미혼모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에서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미혼모 참가자들은 임신 사실 인지 후 부모님께 도저히 알릴 수 없어 베이비 박스를 이용했다거나 혹은 부모님께 알린 후 부모님께서 낙태, 입양, 베이비박스 이용을 종용하는 압박 속에서 베이비 박스를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미혼모를 위한 가장 큰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미혼모의 혈연관계나 주변 관계 사람들이 미혼모의 긍정적인 지지 자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이 입양선택 비율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김혜영외, 2009)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문순영, 2015). 그와 함께, 미혼모와 관련된 연구나 제도적, 사회 복지적, 여성학적, 보건적 차원 등의 다차원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과 지원의 증대 및 제도적 지위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노경란, 김숙이, 2018; 손승영, 2017; 오은정, 김혜영, 2018).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 첫째는, 현재까지 진행된 미혼모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출산 이후의 경험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고 임신상태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 중에 미혼 임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돌봄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미혼모 관련 국내 선행 연구의 다수는 미혼모를 취약계층으로 인지하고 사회 복지적 차원의 지원을 도모하는 연구여서 미혼모의 심리 내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나 돌봄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소수의 심리학적 논문들은 이들이 미혼모로서 겪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대한 것들로서 임신경험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김희주와 그의 동료들은(2012) 미혼모들이 사회적 낙인을 안고 주변의 지지 없이 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을 탐색하였고, 이동귀와 그의 동료들은(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미혼모들의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경험들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미혼모들의 심리 정서적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사회적 낙인 속에서 홀로 겪

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큰 것과 이들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모들의 심리사회적 경험, 그중에서도 연구결과가 극히 드문 임신 중 심리사회적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혼모들의 심리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와 상담적 개입 및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방 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 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논문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발표한 임상심리 전공 교수와 임상심리 박사과정생에 의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분석방법의 4단계 절차를 거쳐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결 과

상위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임신, 위기적인 몸의 변화	달라진 몸의 자각
	체형의 변화와 사회적 압력
충격, 위기임신의 충격에 압도됨	예상치 못한 인생의 충격
	앞이 캄캄한 막막함
	심리적 무감각
갈등, 위기임신이 가져온 양가감정속의 변민	출산과 낙태,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의 갈등
	생존의 위협/ 생존가능성에 대하여
복합적 갈등관계, 아이아빠	남자친구가 아닌 아이 아빠로서
	달라진 태도, 변화된 관계
	관계의 포기
혼전임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시선을 느끼며
	반대와지지 속에서
책임감, 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생명을 느끼다
	벧속 아이를 존재로 인식
	모성의 발견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16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한 상황적 구조진술과 이를 토대로 연구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경험의 본질을 일반적 구조진술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

임신, 위기적인 몸의 변화

모든 경험에 앞서 미혼모들의 임신부로서의 최초의 경험은 임신으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 즉 신체 변화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임신 후 월경이 중단되는 몸의 변화로 임신을 알아차리게 되고 입덧이 시작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미혼모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예민해지고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미혼모로서의 복잡하고 갈등적인 심리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달라진 몸의 자각

참여자들이 처음 임신을 자각하게 된 것은 몸에 생긴 생소한 반응들로 인한 것이었다. 먼저 다수의 참여자들은 월경이 멈춤으로서 임신을 자각하였고, 이후 피로감과 예민성의 증가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예상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참여자 2와 같이 몸의 변화를 임신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참여자 6과 같이 임신으로 인해 달라진 몸은 자각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급격한 몸의 변화 속에서 주변의 지지가 없는 가운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생리가 처음 안 나오고 병원 갔었어요.”(참여자 3)

“똥가 입덧 이런 게 처음 하잖아요. 이게 입덧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일도 그만두고.”(참여자2)

“가장 힘들었던 거는… 호르몬이 날뛰는데 축하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5)

체형의 변화와 사회적 압력

몸의 변화에 따른 참여자들의 또 다른 경험은 임신부로서의 체형의 변화였다. 청년기의 이러한 체형의 변화는 외모를 중시여기는 사회 속에서 두려움이나 수치 의 경험이 되었고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졌다. 참여자 1은 임신으로 인해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서 자신의 외모가 저평가 될 것에 대한 불안을 느꼈고, 학생 신분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학교생활을 해야 했던 10대 미혼모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변화된 체형을 주변인들이 알아볼까 두려움을 느꼈다.

“일단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불어져있으니까.”(참여자1)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배를 숨겨야 하잖아요. 들킬까봐… 엄청 항상 긴장하고.”(참여자8)

위기임신의 충격에 압도됨

미혼모의 임신 경험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뜻밖

의 사건으로 인해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충격을 경험하였고, 거기에서 오는 압도감과 막막함을 경험하였으며, 심지어 사건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심리적 무감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충격

참여자들은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과 혼동과 난감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은 이를 “멘붕”으로, 참여자 8은 “청천벽력”으로 표현할 만큼 임신은 참여자들의 삶의 방향을 드라마틱하게 재설정 해야 하는 위기상황이었다.

“멘붕이 왔죠.”(참여자1)

“그냥, 갑자기... 갑작스럽게 임신했어요. 제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가 19살이었는데,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참여자8)
“계획도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냥 계획도 없이 가져진 것 같아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참여자2)

앞이 캄캄한 막막함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임신을 자각한 참여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사건에 대해 무능감과 좌절을 느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를 마음속으로 자문하며 임신이라는 사실에 압도되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너무 해탈했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참여자 1)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됐지?”(참여자 7)

“그때는 정말 막막하긴 했죠..(참여자 4)

심리적 무감각

일부 참여자들은 심리적 무감각(numbness)을 호소하였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삶을 뒤흔들만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해리와도 유사한 경험이 나타났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고.. 어? 임신했네. 그렇게 생각되어서..”(참여자 3)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멍 한거요. 머릿속에서 정리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하지? 그냥 이런?”(참여자 7)

“뭔가 그냥 다 놓게 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참여자 8)

갈등, 위기임신이 가져온 양가감정속의 변민

이처럼, 뜻밖의 임신 사실을 알고 무능감과 좌절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선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출산과 낙태, 양육과 입양 등의 결정의 기로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양가감정들 속에서도 가장 갈등이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새 생명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이에서의 양가감정이었다.

출산과 낙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의 갈등

위기임신을 알아차린 미혼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인공 임신중절’ 이었다. 이들은 임신을 유지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시작하고, 때로는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 임신 후기에 이르러서까지 낙태에 대한 고민을 지속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는 출산을 결정하고 나서도 입양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며 임신 기간 내내 양가감정에 시달렸다.

“낙태하는 게 낫나? 애 낳으면 내 인생은 끝인데.. 확신은 하나도 없었어요.”(참여자 3)

병원가자 애기 못 낳겠다 이걸 아닌 것 같다 그랬다가 저도 그 중간에 한 5개월 애기 임신 5개월 때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낳아야 하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야하나? 이걸 아닌 거 같은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거예요.”(참여자 7)

“생각을 많이 했죠. 애를 낳아서 입양을 보낼지. 아니면 계속 입양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참여자 2)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가장 큰 갈등은 아이를 선택함으로써 따라오는 경제적 손실이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임신 전부터도 경제력이 없었기에 아이와 함께 생존할 수 있을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출산과 함께 포기되어야 하는 경제력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모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하고...”(참여자 1)

“경제적인게 제일 컸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막 넉넉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애기가 생기면 필요한 게 많고 하나..”(참여자 6)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아, 어떻게지...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돈 생각이랑,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랑.”(참여자 8)

복합적 갈등관계, 아이아빠

새 생명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결합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미혼모들에게 한 남자를 넘어서 아이 아빠로서 새로운 관계를 맞게 된 이성과의 관계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 중 하나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이후 그 어떤 것보다 아이 아빠와의 복합적인 관계 변화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었고 결국 관계의 결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남자친구가 아닌 아이 아빠로서

참여자들은 임신 이후 변화된 역할에 대한 기대로 아이 아빠를 남자친구가 아닌 아이 아빠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아이 아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면서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파트너에 대한 실망으로 두 사람은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결국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임신하고 결혼 할 거라고 생각 하니깐 원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면서 이걸 아니다 싶어서 짐 싸 들고 나왔어요.”(참여자 4)

“점점 없던 게 생겨버리니까 서로 너무 많이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자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아이를 지우기로 했죠.”(참여자6)

이 사람을 믿고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서 --- 근데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여서 예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복합적인 게 다 섞여서 결국엔 틀어진 것 같아요.”(참여자 7)

달라진 태도, 변화된 관계

기혼 임신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원치 않는 혼전 임신에 있어서는 더욱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달랐다.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임신 후 아이 아빠의 태도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아이 아빠와의 이별은 곧 미혼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일부 참여자들은 자기표현을 억누르고 관계 유지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어지는 심리적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처음엔 좀 놀라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지우라고. 솔직히 기분 좋진 않죠.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죠.”(참여자 2)

“아기 지우라고 하는 것 보다 그 전이랑 후랑 나를 대하는 온도차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얘기를 가진 상태에서 이 남자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그런 심리도 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그러다가 저는 얘기를 배고 있으니까 헤어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매달리고 있었어요. 빨리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참여자 8)

관계의 포기

참여자들은 임신 소식을 대하는 아이 아빠의 기대에 못미치는 태도와 임신후에 더 복잡해진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깊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결국 의지할 수 없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관계’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임신부가 된 미혼모들이 자신과 아이를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기에 아이를 수용하지 않는 아이 아빠와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애 아빠하고는 제가 책임 지겠다고 하고 완전 깨지고”(참여자 1)

“그 사람이 해줄수도 없고 그렇게 나와버리니까요. 쉽진 않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참여자 2)

“그래서 점점 애 얘기도 약간 시큰둥하고 그래서 그냥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연을 끊었어요.”(참여자 5)

혼전임신, 사회편견을 마주함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 문화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특히 혼전 임신을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서 미혼모들의 임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계들에 변화를 가져왔다. 때로, 그러한 관계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인 원가족과의 갈등과 분리로 이어지기도 하여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고립과 편견을 마주하게 되었다.

가족들의 반대와 지지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혼전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다양한 반응을 경험하였다. 나이가 어린 참여자는 부모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부모님의 반대와 질타 속에서 갈등을 느꼈고, 일부 참여자는 임신 후기로 갈수록 가족들의 달라지는 반응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임신 이후 가족과의 관계의 질이 더 깊어지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였다.

“부모님과 관계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계가 취약한 걸 보여줄 때 좀 더 끈끈해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안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참여자 3)

“너무 반대가 심하고...엄마한테는 7개월째에 말씀 드렸는데 중절수술 하러 가자고 하셨거든요.”(참여자 5)

“난리 났죠. 엄마는 입양 보내라 싸우고.. 그러다가 계속 실랑이하고 하다가, 엄마랑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했어요. 엄마가 먼저 연락이 와서 엄마가 완전하게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엄마가 받아주셨죠..”(참여자 6)

“들켜서 그 아빠 귀에 들어갈까봐 그게 무섭고.”(참여자 8)

사회적 고립

한 사람의 임신이 결혼속에서 이루어질 때 환영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미혼모의 임신은 주변의 환영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임신 사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해산전 돌봄을 받기 위해 미혼모 시설로 입소하거나 원가족의 집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맺고 있던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기도 하였다.

“혼자 그렇게 2주 3주 동안 집 밖에 안나가고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한달 정도 일을 하면서 버텼죠”(참여자 1)

“7개월까지는 배가 거의 안 나왔었구요, 8개월 때부터 배가 많이 나왔는데 7개월 때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죠.”(참여자 6)

“임신하고 있을 때 동안은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다 숨기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서... 친구들조차 몰랐어요. 출산할 때까지는. 친구도 출산할 때 알았거든요.”(참여자 8)

사회적 편견

참여자들은 혼전 임신을 자각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편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간접 경험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더욱 움츠러 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같이다니던 친구가 싱글맘이 되면, 들었어? 그 친구가 결혼하지

않고 얘기 낳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흔하게 들려오고 하니깐.. 내가 그 이미지가 되겠구나. ... 제 얼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죠. 근데 그냥 로스트(lost)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참여자 3)

"근데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 때의 반응이 정말 다... 하 왜 그런 짓을?"(참여자 5)

"그 말들이 나올까봐 무섭고. 그냥 욕할 것 같았어요. '재 임신했대'하고 뒤에서 막 쑥덕쑥덕거리고. 다른 애들이 임신했다가 낙태를 해도 욕을 하는데. 임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이에 임신했다.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욕을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들키기가 싫었어요."(참여자 8)

책임감, 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에게 있어 출산이라는 선택은 자신의 삶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미혼모로서 자녀를 낳고 양육을 결정했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뱃속의 존재를 생명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이로 인식하면서 '책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생명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원치않는 임신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들도 두려움과 번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새 생명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였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깨닫게 되었다.

"책임을 져야겠다.. 심장소리 듣고 나서는 확고했고."(참여자 1)

"생명에 대해서요? 생각을 안해봤어요. 도덕관념은 있는데 솔직히 얘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안했거든요. 그래도 가져졌으니까 지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되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낙태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진짜 생명을 죽이는거니까."(참여자 2)

"아... 진짜 생명을 지켜야겠다.. 살인 같았어요 만약 여기서 죽이면.."(참여자 5)

뱃속 아이를 존재로 인식

낙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뱃속의 생명을 자궁속에 불필요하게 생겨난 세포로 여기기도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뱃속의 생명을 자신의 '아이'라는 존재로 여기며 존재와의 애착을 경험하였고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였다.

"나는 지켜야해. 이 아기를 지켜야 해. 이렇게 생각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그 당시에는 그냥 애를 지워야 된다는 생각을 웬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한적이 없었어요. 글썄요 제 아이니깐."(참여자 4)

"아무래도 혼자가 된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살아있다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참여자 6)

모성의 발견

일부 참여자들은 위기 임신 속에서도 '엄마가 된다'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모성이 피어남을 경험하였다. 모성의 발견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아이에 대한 책임의식

을 더욱 확고히 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지금 엄마가 된다는 게 신기해하면서도 엄마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참여자 1)

“근데 뭔가 그래도 애가 생겼다는게 되게 반가웠어요.”(참여자 7)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참여자들이 미혼모로서 임신기간 동안에 겪는 변화는 신체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임신으로 인하여 겪은 월경의 중단과 호르몬의 변화는 육체적인 피로감과 외형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자극에 대해 증가된 예민함이었다. 또한, 이들이 임신부로서 겪은 체형의 변화는 주변에 임신사실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주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심리적인 갈등을 지속적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 속에서 혼전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수치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서 참여자들은 임신을 유지하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순환이 지속되는 변화의 경험들을 하였다.

이와 같은 미혼모들의 임신기의 심리 사회적 경험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임신을 자각한 시기였다. 그 충격은 인생전체가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경험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등이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미혼모로서 임신 초기에 겪은 심리사회적 경험들은 부정적이고 위기적인 성격을 가졌고 낙태와 출산, 입양과 양육 등과 같은 주요한 결정들을 직면하여 큰 혼란과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이러한 과정을 혼자 겪으면서 갖는 경제력 상실은 때로 생존의 위협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갈등들 못지않게 이들에게 크게 부각된 외면적인 갈등은 남자 친구였던 파트너와의 새롭고 복잡한 갈등적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 할까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단순한 성적파트너를 넘어서서 아이의 아빠로 그 위치가 정해지면서 둘 사이에 생긴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아이 아빠들이 기혼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결국 둘은 이성간의 관계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임신 시기를 지나면서 일반 기혼 임신부들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부정적인 다양한 갈등을 겪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이 태내 아기에 대하여 한 생명체로서 인식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느끼며, 책임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기꺼이 미혼모로서의 임신 시기를 감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임신기간 동안에 갖는 심리사회적 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30대 미혼모 8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로 6개의 상위 구성요소와 16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미혼모들이 임신기에 겪는 심리사회적인 경험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다양한 내적갈등과 아이 아빠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와의 갈등과 단절의 위기속에서도 참여자들은 태아에 대한 생명체로서의 인식과, 모로서 느낀 책임으로 임신을 유지함’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연구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미혼모의 임신은 그 자체가 ‘위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 시기에 미혼모들은 갈등, 불안, 위협,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정서적인 경험들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 자체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때, 미혼모들의 임신은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예상된 임신기를 갖는 기혼 임신자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낙태율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실시된다는 사실(이병호, 2015)속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서 위기임신을 한 산모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격렬한 갈등의 기로에 섬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기 임신을 한 초기 임신부들이 우울, 불안, 무기력 등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wigar et al., 197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시기에 미혼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집중적인 심리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의 미혼모들이 신체변화와 함께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의 문제도 선행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것으로서(문정숙, 김영희, 2014; 변호순, 최정균, 2016), 이들이 홀로 가구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체계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가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겪는 불안도 알려진 것으로서(Aurora, Kathleen & Crystal, 2013)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시스템과 사회적 자원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과부와 고아’를 부탁하셨다 (신 14:29). 임신기의 미혼모들이 한편으로 과부이면서 고아를 돌봐야하는 큰 부담을 살고 사는 사회적 취약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에 반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미혼모의 위기 임신경험의 주요한 본질 중 하나는 그들이 예상하거나 겪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유교적 문화의 뿌리가 깊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여전히 미혼 임신이나 미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부정적일 것을 예측하였고 그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은 이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전정화와 엄태완(2012)이 미혼모 시설에 있는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했

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시선과 낙인’은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심리 사회적 경험 중 하나라고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미혼모들은 자신을 대하는 의료인, 공무원 및 보육교사와 같은 전문가들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성정현 외, 2016).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은 생명을 지키는 어려운 선택을 한 미혼모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며 위기임신 초기에 낙태와 임신 유지의 기로에 서있는 미혼임산부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해악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친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지도하시고 축복하여주셨다. 우리 중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아니실까? 이와 같은 미혼모에 대한 정죄함이 없는 태도나 용납과 지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미혼모 임신 경험의 핵심은 모성애에서 나온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이들이 다양한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도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결심하는 이유로 책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편 139:13)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창조된 생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 비록, 미혼모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의도적으로 출산을 결정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모태의 존재를 생명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며(로마서 1:19), 태아를 자신과 연결된 애착 대상으로 인식하고 보호와 돌봄을 선택한 것은 모성적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임신을 유지하는 것과 출산을 결심한 미혼모들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성서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선택이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비난받거나 가난의 경험과 아동 학대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변호순, 최정균, 2016; 배화옥, 강지영, 2020; Oliver, Kuhns, & Pomeranz, 2006) 사회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나누고 있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당연한 직무를 고려할 때 교회공동체적으로 미혼모의 임신유지와 출산등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이해와 지지적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위기임신 초기에 심리사회적인 경험 속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 정서적인 갈등 경험들을 탐색하여 미혼모들에 대한 이해와 돌봄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미혼모들을 돕는 관계자들, 심리상담 및 임상가들, 정책 개발자들과 이들을 돕는 것에 소명을 느끼는 교회 지체들에게 미혼모들의 임신 시기의 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소수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한 것으로서 모든 미혼모들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나 심리사회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다양한 미혼모들의 위기임신 경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빠른 서구화 물결 속에서 이제 미혼모는 한국 사회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소집단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절감을 겪으며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들의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은 한국사회가 함께 져야할 당연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부탁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미혼모의 심리 사회적인 필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연구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효과적인 심리상담적 프로그램개발 및 개입은 기독교 상담가 및 임상 가들이 지속적으로 힘써야할 부르심의 영역일 것이다.

참고문헌

- Aurora, P. J., Kathleen. S. J., & Crystal, A. T. (2013). Single Mothers, Nonresident Fathers, and Preschoolers'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1), 129-140.
- Ertmann, R. K., Bang, C. W., Kriegbaum, M., Væver, M. S., Kragstrup, J., Siersma, V., Wilson, P., Lutterodt, M. C., & Smith-Nielsen, J. (2021). What factors are most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ternal-fetal relationship? A prospective study among pregnant women in Danish general practice. *BMC Psychology*, 9(1), 2.
- Harron, K., Gilbert, R., Fagg, J., Guttmann, A., & van der Meulen, J. (2021). Associations between pre-pregnancy psychosocial risk factors and infant outcomes: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England. *The Lancet Public Health*, 6(2), 97-105.
- Main, Ma (2000). The organized categories of infant child, and adult attachment: Flexible vs. inflexible attentions under attachment-related stres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055-1096.
- Sandman, C. A., Davis, E. P., Buss, C., & Glynn, L. M. (2012). Exposure to prenatal psychobiological stress exerts programming influences on the mother and her fetus. *Neuroendocrinology*, 95(1), 8-21.
- Swigar, M. E., Bowers, M. B., & Fleck, S. (1976). Grieving and Unplanned Pregnancy. *Psychiatry*, 39(1), 72-80.
- Oliver, W. J., Kuhns, L. R., & Pomeranz, E. S. (2006). Family structure and child abuse. *Clinical Pediatrics*, 45(2), 111-118.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94.
-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 양육 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0), 121-155.
- 노경란, 김숙이 (2018). 10대 미혼모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국가 간 비교 연구: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1(1), 99-123.
- 문정숙, 김영희 (2014).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109-123.
- 문순영 (2015).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73-103.

- 문현상 (1994). 한국 가족보건 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85.
- 박동진, 김혜성, 김희숙, 이설아, 엄주희, 권오용 (2017).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57, 323-372.
- 변호순, 최정균 (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53), 1-23.
- 배화옥, 강지영 (2020). 아동학대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 연구-일회재학대와 반복재학대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69(3), 145-171.
-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2016).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404-418.
- 손승영 (2017). 양육 미혼모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학 연구, 27(1), 35-66.
- 오은정, 김혜영 (2018). 미혼모의 양육 스트레스 영향요인: 우울, 사회적지지, 건강지각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4(2), 116-125.
-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4(2), 105-124.
- 이병호 (2015).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이슈&진단(196), 1-25.
- 이현주 (2011). 원가족이 경험한 양육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1), 143-175.
- 전정화, 엄태완 (2019). 미혼모 체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인문사회 21, 10(6), 1469-1484.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미혼모의 임신 기간 중 심리사회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발표자	고은애, 김혜정
		논찬자 (소속)	강천구 (칼빈대학교)

이 연구는 미혼모들이 임신 중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 질적연구로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수행된 의미있는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사회복지적 관심에서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에 집중해왔다면, 이 연구는 그들이 “임신 중”에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특성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공감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의도한 대로 이 연구는 상담사, 임상가, 정책 개발자,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학술대회가 “기독교 학문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임을 고려할 때 기독교/목회 상담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연구가 가지는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연구의 제목을 볼 때, 이 연구는 신앙적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의 미혼모 참여자들이 신앙과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지의 여부도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심도있는 영적, 신학적 주제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학술대회의 성격과 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연구자들이 기독교 신앙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또한 결론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적 대응을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속의 신앙적 주제들이 다뤄지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구자들도 인정하였듯이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임신 시기는 큰 충격과 혼동의 시기이며, 남자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고, 많은 죄책감과 사회적 편견 속에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통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또는 죄)으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낯설고 힘든 현실에 대한 신앙적 이해,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의미, 그에 대한 책임감, 인공 임신중절이 아닌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윤리적 동기와 과정, 이 모든 문제는 심리사회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신앙적 경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제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주제들에 대한 대화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질적 연구는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관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세심하고 엄밀한 방법론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의 그물망에 걸리는 경험만을 서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의 본래 연구 목적과 진행 과정에서 신앙적 주제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논문의 신앙적 언급과 그 주제들은 연구 자체의 내용과 결과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일반 상담학적 관심으로 수행된 연구에 피상적인 차원에서 덧입혀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예, 성구 인용,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사회적 취약층을 돌보아야 하는 교회공동체의 책임 등).